

조선인민군 포병사령부 병기총국장
천이완 소장.

양력:

본명: 천이완 알렉산드로비치, 1919년 10월 1일,
원동변강 현해주 보보시예는 구역 블라바눔카를 빈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1928년에 블라바눔카를 신원학교에 입학하여 1932년
에 졸업하였다. 다음 계속 블라바눔카 농민정년 중학교에 입
학하여 1935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1935년에 원동에 유일한 한인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한후
1937년에 전문학교 2학년으로 졸업하고, 다음 원동으로 불어
전체 한인들리 강레이주로 알리나나 사범전문학교로
원동에서 떠나 중앙아시아 가자흐공화국 까자린스크에
모게리였던바 천이완은 그 학교를 따라 까자린스크
에 도착하여, 1938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전문학교
를 졸업하면 법적으로 파견받은 곳까지 2년간 교원직무에서
꼭 일하여야 하므로 되었다. 그러나 천이완에게는 한가지 우월권이
있었던바 그것은 그가 어리서 불어 체육을 잘하여서 소문을
놓았다. 사전에서 공부할때에도 우수한 체육 선수로서 각 체육
경기에는 빠짐없이 참가하는 등시에 사관체육단 지도자로서
배구선수로써 있었다.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았은 사범대학
에서도 어린 체육선수는 꼭 얻으려고 하였다. 천이완의 이러한
천재를 비난하여 사대지도부는 천이완을 사전 졸업후 직접
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사대에 무조건 입학시켰다. 또 다른
한가지 유리한 조건은 천형 천돌이 일년전에 사전을 필
하곤 우즈베키코브한에서 일하고 았기때문에 부모들에 대한



사진은 1947년에 천이완씨가 조선인민군 체육부장으로 있을 때였다. 오른쪽에 서고 있는분은 친형 천을씨다

걱정 근심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천이완씨는 사관 졸업후 그해에 직접 사대 자연지리 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사대에서 4년동안 공부하고 1942년에 사대 졸업국립 시험을 치러고 고졸.전문 학교 자연지리 교원 칭호를 받는다. 이 때 학 지르부의 파견을 받아 우르베크 공화국에 가서 공화국 교육성의 파견에 따라 하유겐즈쿠 중 실척구역 가라쉬 고등학교에서 자기 친분 과목들의 담당교수로 일 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벌써 1938년부터 천이완의 친형이 문학교 원을 하고 있었다. 두형제는 한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신뢰를 받으

해서 '쏘련군에 소병될때까지 모병적으로 일하였다.
 1942년에 천이완은 23세의 미남자, 그와 더불어 대학을 나왔으며 체육가-배구선수로서 성장한 딸들은 중학교에서는 욕심을 낼만한 대상이었다. 바로 이때에 한 해전에 동공함을 졸업한 강이나 양을 만나게 되었던바, 그녀와는 1943년에 원동변강 뱃시에는 구역 바라바스 숲에서 만남하였다. 강이나 양은 사무원의 (교원직가정에서) 가정에서 출생하였던이러 공복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겨서 변법을 미인이라고 불렀다. 천이완 둘이 만난 것은 항구영생 배필이었다. 그들은 1942년 11월 22일에 결혼 장례를 양측 부모들이 제신 화평속에서 성대히 하였다.

천이완은 1945년 10월 하뉴켄즈 즉 군사동원부의 명령에 따라 초모리에서 급속히 원동변강 제 1전선, 25군 단 관할하에 배속되며 북한에 도착하였다.

1945년 11월 1일부터 25군단 민전사령부 코마넨트 소장의 지도하에 북한의 농지개혁, 산업국유화등의 민족개혁에 적극 참가하면서 김일성정부를 양심껏 돕아가면서 일하였다.

1946년 5월 3일부터 민선군 조직과 관련하여 포병총교수의 번역원으로 포병부대들을 조직함에서 일하였다. 군사참모-대위.

1947년 3월 7일- 조선인민군 최군사령부 체육부장- 군사참모 소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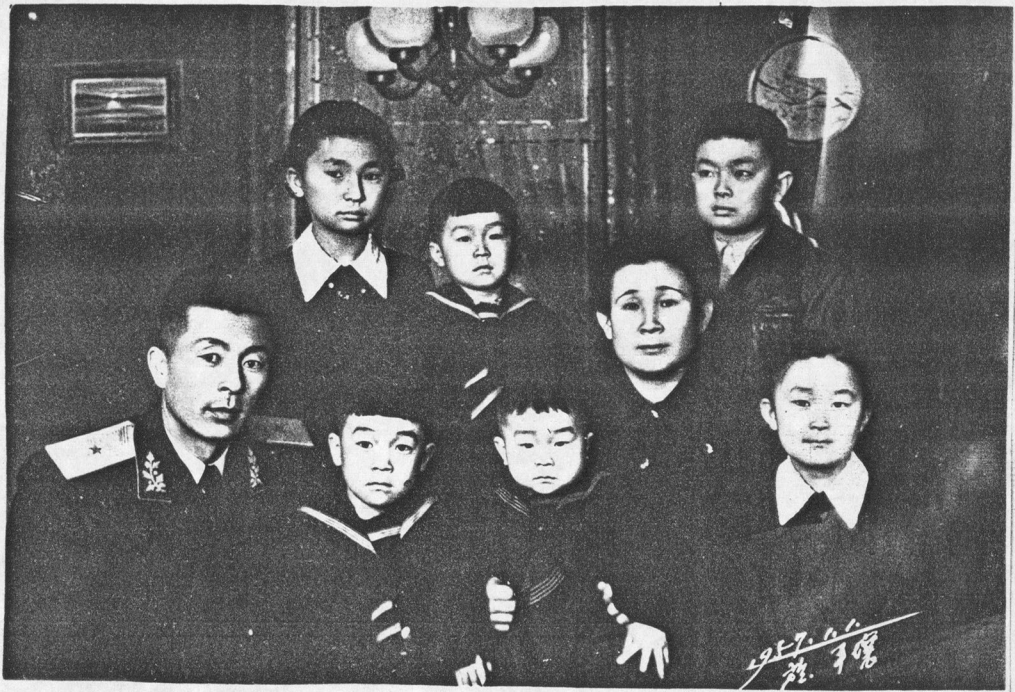
1948년 5월 6일- 조선인민군 당국 사령부 번역원- 군사참모 중좌

1949년 - 1952년 4월 22 당국 사령부 참모장- 군사참모 대좌

1952년 4월 24일 - 포병사령부 병기총국 국장 군사참모 소장.

조선으로 불어 쏘련군 제동으로, 쏘련공산당 제동으로 쏘련적십자사 제동으로 하여 종합 438명의 쏘련간부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하였던바 그중에서 45명은 완전히 한탕당하여 후유 총살되고 약 120명 가량 사상검출후 북한으로 부터 추방되며 쏘련에 귀환하였던이러 가타 270여명 간부들은 사상검출결과 북한 의 방방곡곡-농촌, 환관, 광산, 립업소등과 정칙법 수용소등에서

자기의 세상을 마감하였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의 영웅심에서
출발한 개인 숭배주의 결과인 것이다.



사진은 천이환소장이 병기총국장으로 제일시의 가족사진

김일성의 개인 숭배에 대하여:

1992년 2월에 고려인 문화협회 중앙협회 명의로 정치실무적
리론 논론회를 모스크바에서 조직하게 되었다. 그 실무적 회의에
각 공화들로 불어 약 200여명 지식층 소련 한인 언더리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리론 회의 의정에는 단항까지 불제: 고려인
들 앞에 제기된 정치적 열가지 문제와 그의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였으며 리론 회의 보고서는 - 기본보고에 유부위원장, 보충보고 등은
각 공화국 대표들이 하게 되었다. 기본보고에서 유부위원장은 언중
화기를 소련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쓰팔린에 의한 한압, 강제이주
에 대하여 여섯의 쓰팔린의 개인 숭배의 결과라고 강조한 것은
현재 북한 지도자 김일성에게 개인 숭배가 심하여 무다한 언변
들의 한압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실례로 박헌영, 박철우, 최재
익이완 등이 한압 처단 되었으며 현재 중국과 소련 간부들은
전북다 청산되고 어느 형편이라고 결론을 하였다. 이 때에 본 리론

회의에 참가하고 있던 북한 대사관 참사가 연단에 올라 우리
 발언하기를 - 우리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일성 원우에게는 개인용비
 가 없다고, 하고, 우리당은 소련에서 떨어져 있던 충실한 간부
 들도 현재에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 그당시에 누가 일하
 고 있었는가? 438명에서 남아 있는것이 민족보위성 김봉을
 부삼, 내무성 사회안전국장 방학세, 정치안전국 처장 김학인
 등 3명 뿐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사상검토란
 무엇인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이완 노장은, 120명가량의
 소련에 귀환한 소련 출신 간부들중 사상검토 결과에 최별을 받지
 않고 돌아온 간부들을 불과 10여명에 달하며, 그 외에 간부들은
 다 불적, 강직 최별을 당하였으며, 그중 21명은 출당을 당하였
 으나, 4년여 귀환후 복당하였던바, 그 10명중에 복당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현한 일은 아니었다. 노동당 열성자들은 아무리
 공능 있고 존경받던 사람이라도 그를 반당분자로 만들자면
 재료를 조작하여 만들어 내었다. 때때로 사상검토 지도자
 들은 현이완도 현을과 같이 단단한 최별을 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재료를 얻을 수 없어서 하북 당원들의 지지를 받
 을 수 없었다.

사상검토:

1958년 12월이 금방 지나자 현이완의 현형 현을의 사상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반자 현이완 형이 듣고는
 강원으로 이포에 내려 갔다 왔다. 그것은 형이 무용죄를 지어
 그렇게 존경받던 어른이 팔세로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려는 목적이였다. 이렇게 형을 불안하리던 이포에
 다녀온후 이어 병기총국 사상검토가 시작되었다. 사상검
 토 당 회의에서는 병기총국장의 지료분어 검토하기 시작하였
 던바 그것은 일반 소련 간부들에게 죄명을 씌우는 사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에나 증거를 뒤룩뒤룩한 것은 현이완의 사

목실에 쓰런 "변라우다" 신문철이 표정적으로 있다고, 하고
 극장을 그것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과 아주 형편이
 나쁜은 전쟁시기에 현이완은 간리병기항에서 방수천 1메
 타를 갖다가 산양용 장화를 짚어 신은 땀이 났었다. 이것
 이 제일큰 문제로 되었으며, 또 한가지 문제는 1945-46년으로 일
 이었다. 그 당시에 현이완은 쓰런 기관대우는 받았으나 함상사복
 을 하고 쓰런군 인권사령부에서 일하는 시기였으며, 따직 쓰
 런에서 가족이 오지 않거나 독신생활을 하느시기였다. 또 그
 령게 독신생활을 하는사람들이 많았기때문에 현이완은
 쓰런에서 불어 잘 알고있던 자기 친구들인 현희안, 박태준,
 박해섭, 박훈 등 5명이 평양중앙부 황금정 양주공장근처
 에서 개인집을 세를 맡아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근처
 에 여러가지 개인 장난군 상점들도 많았으며, 각종 가정도
 구, 기계, 자전거를 무리도 있었더라 그중에서 경제화노연의
 우리노가 비현적 것도 변방도 있어 최근 어둡면 종종 물며 슬슬
 탕도하고 어떤 때에는 밤늦게 일어나 있을 때로 있었다.
 그런데 어리석스러운 사상집을 지도원은 당위원장과 함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셋방집, 종종 물며 놀던 경제화노연
 집에까지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놀고, 무슨말들을 주로
 하였는가 하는것을 조사하였으며, 또범참모부 몇몇군관들을
 특별 검열보리가다를 조직하여 간리, 현, 강계, 만포등
 병기항들을 통당 검열하였다. 그 다음 그 결과들을 가지고 현이
 완에게 질문을 하여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실토하라고 풀타
 대준하였다. 그 당시나, 짐도 받고 있는 쓰런이나 부정행위란 현이
 완이나 현들에게 있어서는 해볼일이 없었다. 간혹 품무들라 같이
 술먹으러 술집이나 경제리 기생집에는 가볼일이 있었지만 반당
 종파란 개념도 모르고 지내다보니 그런말을 할수로 없다고 현이완 때
 답하였다.

화
 큰
 될
 수

병기 총국 사상검토 회의는 매일 오륙 나시불어 7시 까지 하기로
 결정한다음, 어떠한 새 문제가 있어도 매일 어찌든 한말을 모으고
 반복하면서 당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없는 날도 자주만 하라고 호를
 하였다. 당원들은 할수없이 지난 시기의 죽은일, 아무런 문제개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사상검토 지도원의 독촉에 의해서 자기 차
 례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각없는 말도 하곤 하였다. 당 회의에
 서는 어떤 새사건이나 나불가하며 당회의를 제때에 끝내지
 못하고, 즉 저녁 7시에 끝내지 않고 때로는 8시, 9시까지
 끌곤 하였다. 어떤 때이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정부인들은
 아이들은 저녁을 먹여 잠자리에 들여 놓고 사상검토 회의에서
 돌아올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가 제때에 집에 돌아오지 아
 니면 항상 눈물로 마음 쪼리곤 있었다. 그것은 사상검토 회의에
 서 직접 검거하며 사상검토 유치장이나, 내우서에 보내는일로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대 고급간부들은 거이나 전부다 평양
 중앙부 극립예술품극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는 기억
 자 형 3층 아베바트에서 살고 있었다. 사상검토 회의는 전반
 적으로 각국들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문에
 아베바트에서 기다리던 가정부인들은 전부다 형편이 일정하였
 으며, 어느 집 형편이 허사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형편이었
 으며, 사상검토 지도부에서, 김철만 부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대
 로 인민군대 총총책임자로 지르하고 있었으나, 그의 지시에 따
 라 인민군 고급간부 사택은 12일 주야로 2-3명씩 수직을
 서고 있었으면서 어느 간부가 12시에 집에 돌아오면, 점심이나
 저녁이면 12시에 어디로 가며, 어느 간부집에 어떤 사람
 찾아와서 몇시간 있다가 갔으리 하는 것을 일절다
 살피며 기록하였다가 12일 - 12일 사상검토 지도자에게
 보고하게 되면 그 다음날 회의에서는 별사건들이 들어 오게 되었

화
 금
 큰
 될
 는

그런데 한가지 지적해야 될것은 천이완 소장은 다른 장령
 들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는 것이다. 천이완
 소장은 인민군 조직 창시불어 소련군 총력관으로 인민군 군관들과
 아주 밀접하게 사접하였다. 현재는 보위상이지만 인민군 조직
 창시에는 그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거의 휘하에서 군사
 교육 강습을 소련 군관들에게서 받았다. 그는 김일성 발발지산 기본
 성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후할 줄은 알았지만 군사
 규정들은 몰랐다. 전후장에서는 그들은 중대장, 대대장들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전후를 지휘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천이완은 이
 때에 발발지산 출신 강북들에게 절대적 항조를 주면서 전후규정,
 내부규정들을 해설 설명하여 교육하였다. 민족보위상 김형욱
 은 이때로 부터 알게되었으리라 하였는데 천이완 소장을 아주
 존경하여 위로하였다. 때문에 보위상 김형욱은 숙취 모스크바
 에 출장 가게 되었을바 121번 천이완을 자기의 동행자로
 선정하여냈다. 한번은 모스크바에 출장왔을시 천이완의 둘째
 형을 다뉴겐트에서 초청하여 오게하고, 그와 만나보고 천이완
 과 천을 대한 태산같은 호평을 주면서 좋은 선물로, 이름 세개
 시계로 주어냈다.

병기국 사상검토 지도원은 특심에는 천이완은 천을 군사위
 원처럼 가버렸지만 하등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보위상의의 판계를 알고 좀 극러하는 형편에서 인공적 부드러
 운 성격도 보이는처럼하였다. 그러나 병기총국장모르게 하부각
 병기창들에는 아주 엄청난 지령들을 내리며 병기총국장에 대한
 사도한 지표를 배해지라고 신독히 병기국 당위원회에 득파하
 여 보고하라고 지르하였다. 하부복대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소식을
 병기국장에게 전하고 싶어으나, 사방에서 살되고 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눈뜰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병기총국장의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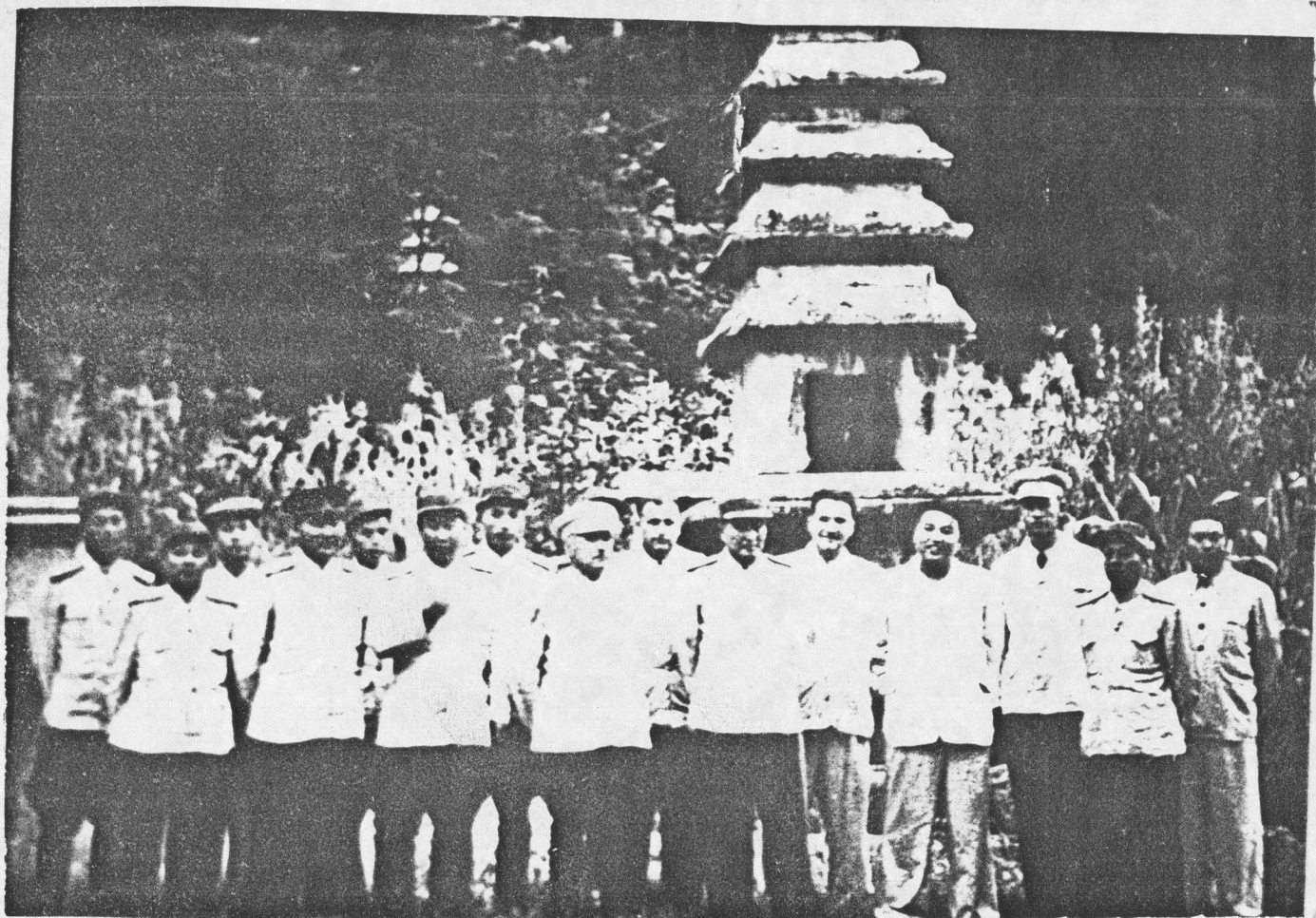
한
 감
 른
 될
 수

윤전 부에게 이런 말들을 전하며 그가 출판사나 회근사에
과동차 내부에서 국장에게 어떤 전런 흥보를 전하곤 하였다.

사상검토 지도원은 세번 점재비를 각 병기창, 후방부, 재정
부등으로 검열하였으나 아무런 문제 위반도 발견할수 없어
극심히 분노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벌써 오래전에 사상검토
를 끝내고 천이환에게 당품을 돌려 주어야 할대선여 근 반년
이한 긴세월을 끌고 내려왔다. 그러나 천이환은 여기에서 대령이
아무런 말도 누구하고런지 하지 않았다.

사실상 병기창 국장 천이환은 장령이라 하여도 다른 장령
들에 비하여 넉넉한 생활을 못하였다. 전쟁후 복원의 경전
적으론 긴박 환경에서 아이 6명을 먹이고 업히고 하자면
(아들 4형제 딸 2형제) 할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다
또 장난 율라는 제복 미닌히느병으로 입고 있어, 적십자
병원의 파견에 의하여 모스크하에 치료받으러 가게 되었다. 병
치료비와 병원에 입원중 모든 비용은 소련법에 의하여 무공로 할지라
도 왕복 좌비와 밀주알간 화에서럭고살 비용을 합하여 호송자
까지 2명분을 계산하면 적지않은 돈이 요구되었다. 천이환은
하루 수 없이 소련대사관에 가서 영사를 만나 사실 이야기를 하고
얼마안한 방조를 받았다. 가정에서 모든것을 검열하고 무엇이나
여벌이 있는것은 몽땅 장과당에 들고가서 팔게하여 돈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보위성 부상으로 계시는 최현 아버이 어리서 어소문
들 듣고 천이환을 자기사부실에 초청하고 자기가 만주 비발지산
시절부터 가슴 열화개에 깎이움겨가지고 단년전 금 회중시계 금
줄까지 함께 계산하면 몇만원 가격이싼 귀중품을 천이환
에게 주면서 - 자, 이것을 팔아 귀중한 아이를 살려야지,
내, 이제 다 늙은게 품시게는 하여 얼하겠냐, 하고 천절하
정답은 알수를 하시였다. 좋은 사람에게 "귀인은" 항상 있는법이

라 하여, ¹² 최현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귀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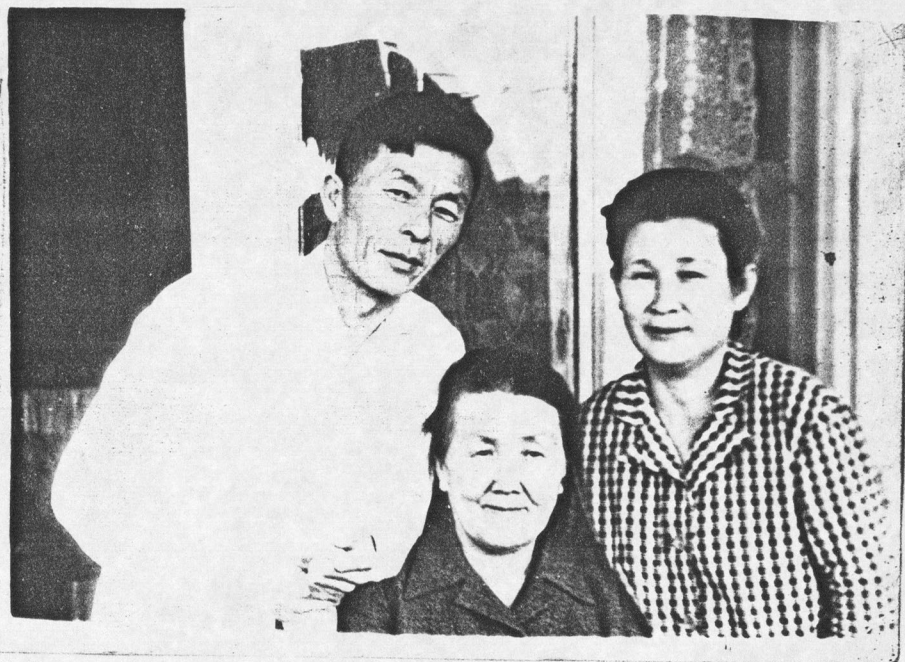


사진은 김일성 누상이 소련고문들과 민족보위성 및 당 간부
들과 같이 찍은 것이다. 좌편 첫 번째 현이완, 다음 리권무.

7군단 군사위원 최윤 소장의 사상검토는 당에서 출당
직위에서 철직, 본인의 요구대로 소련으로의 귀환할 것을 허락
하여 줄 것을 상부에 제기한다는 결정이 내리었다. 이에
따라 최윤 소장은 동생들을 찾아 평양에 올라와 최윤
소장더러 소련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물론 그때마다
같이 하느니 갈 때에 이르러 꼭 데리고 가겠다고 결심해 말하
였다. 그러지 않기로, 현이완 소장도 벌써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다. 왜냐 하면, 최현 최윤 소장이 반당 공화분자로

낙인받아 당에서 출당 되었으니 아무리 사상검토 회의가
 무사히 종말된다 하여도 남 보기 부끄러운 일이었다. 천이환
 노장은 보위상을 찾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로 자세히 하였다.
 보위상은 천이환의 말을 명심하여 들은 다음 사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직접 이문서에 대하여 최고사령관 김
 일성에게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천을 선생은 자기가 일하던 7군단에서 모든 일들을 종말 짓고
 평양에 올라와 동생집에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천을
 선생의 귀국 숙독은 미리 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
 이환의 숙독을 따져 시작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사상검토
 지도자가 천이환의 당증을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지도
 자는 삼기도 천이환의 뒷조사를 계속 하면서 사상검토 회의
 첫날에 최후한 당증을 제출 되었을 때 드록 내주지 않은
 것이었다. 벌써 사상 검토 회의가 끝난지 2 개월이 넘었다.
 하루는 천이환의 부인 강나나 양이 남편이 너무너무너
 무면서 말을 드려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정스럽게
 물리하다가 -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는가 하고
 물었다 - 그래야 천이환 노장은 대답하기를 원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사상검토 지도자의 허락이 없다
 하면서 형기종국 당위원장이 나의 당증을 드록 주지 않아
 그러오. 그때에 - 강나나 양은 - 그까지 당증을 해
 줄 하겠소? 소련에 가기만 하면 살 터인데 - 하였다.
 그 당증이 있어야, 그것을 중앙당에 갖다가 바치고 전
 당 숙독을 하여 주신 법이 아니오. 당증이 없으면 출당
 맞은 사람이 되는데, 소련공산당에서 물으면 물었어라고
 대답하겠소? 시간이 걸려도 전당은 해가지고 가야
 하지요 - 하였다.

그때에 강나나 양은 천이완 하고 할화기를, 당신은
모르는척 하고 가만히 계시도. 내가 총정칙국장 허봉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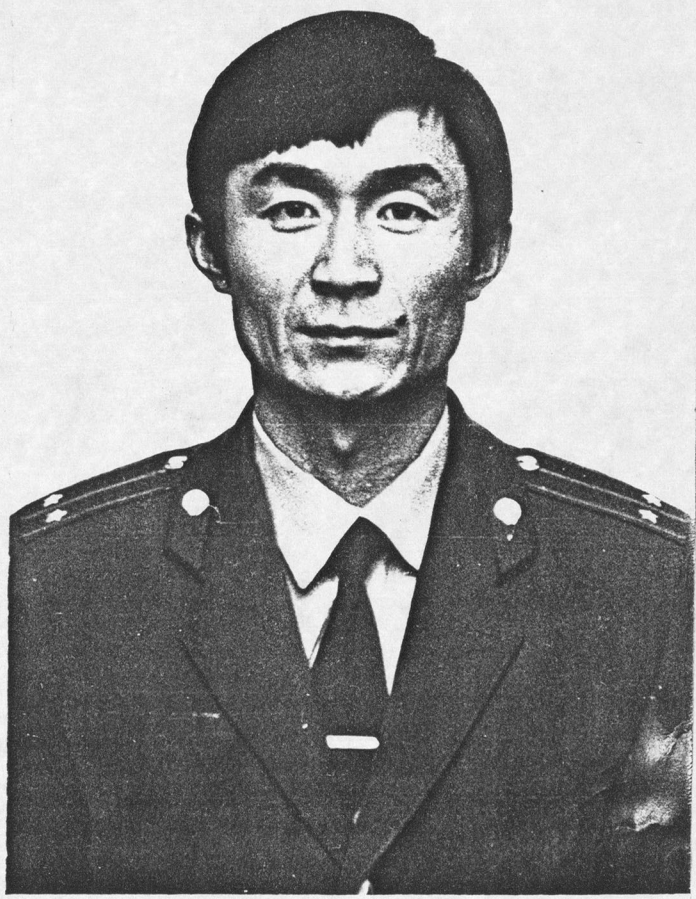
사진은 조선에 귀환후 1961년에 천이완
부부와 장모님.

의 처하고 잘 알고 있는 사정이나 그 분하고 복학하면 될수있도
하였다. 그 이튿날 낮에 주인들이 다 일하러 나간 틈을 타서
천나나 양은 총정칙국장의 집에 번지 전화를 걸고 놀러
간다고 한다요, 아이들에게 풀과자 한봉지 싸가지고 갔다
나나 양이 정물 근처에 접근하자 허봉학의 부인은 벌써
밖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알아버려가지고 들어 가게 되
었다. 강나나 양은 보위상 사택과, 총정칙국장 사택은
종종 다녀에서 전가족들이 배서, 간호장 소지권까지
잘 알고 접대하는 놀던 편이었다. 나나 이르러는 시형이
사상권을 걸라를 말하고 그이가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우리
도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 하도없없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
어서 인사하러 왔다고 하고, 그런데 병기 총국 당위원장이
당증을 주지않아 전당수속을 하지못하여 떠 못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득이, 중립치국강이 지역이 떨어져 돌아오시면
 형기총국에 전화를 끊어버릴라고 부득이하고 두분은 잠별인사
 난다고 헤어졌다. 세상에 자기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
 남편은 약에 쓰자고 하여도 없다고, 하도 조선속담에 있어
 니 그것이 사실이다. 현미완 소장으로 맨 처음에는 부인의
 제어를 그만두라고 하다가, 이제 더 미러야 본전인 데
 그러면 가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문제는 쉽게 해결
 되었다. 불과 2일이 안지나서 형기총국 당위원장은 사상건
 호 지근원의 1명의로 현미완 소장에게 당증을 도록 내주었다.
 현미완은 그 이튿날 아침에 당중앙 조직부에 전화를 걸고
 당증 받아오려간다는 보고를 하고 평생을 가지고 가니까
 당증을 접수하고 말하기를 현미완 행정적 문제가 다 해결
 되었으면 소련에 가도 좋다고 할라고 동지의 당물건은
 차후 선생의 뒤를 따라 당계통으로 소련공산당에 전달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4개월 이상 걸린 소련 귀국
 유혹은 완료되며 1959년 12월 17일에야 평양을 출발
 하여 소련으로 떠나게 되었다.

현미완, 현미완 두 형제는 15년이란 긴 세월을 북한
 의 인공건설, 특히 인공대 건설에 힘쓰고, 현미완의 지혜를
 받아 일하였지만 소련으로 귀환할 때에 자기 여비를
 가라고 하였다. 여비문제를 해결하러면 또 소련 대사관
 소련 무력성을 결해서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또 열흘
 이상 시일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돈문제는 차후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에 해결할 것을 짐작하고 협곡비사가 나왔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모스크바까
 지 차비, 짐승값 등에 필요한 돈문제였다. 두 가정은 꾸렸
 던 집을 용당 해치고 무엇이냐 쓸만한것을 전부라 장마당

에 들고 나가 팔아 돈을 만 들게 하였다. 이렇게 두 가족은 장마
당에서. 풍돈을 몰려가서인 자기 여비를 기와를 차고, 소련에 귀



소련에 귀환후 하뉴켄을 내무성 전문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내무성 검열국 각은행 검열부장, 차남 천 알렉세이.

환하게 되었다. 두 장령 가족은 자기들이 살던 사택에서 평
양 역전까지 약 2000 메타 (5리 정도) 거리를 나아 가온
들로 샅을 내며 짐을 싣고 어른들은 보헤브를 타고 나갔다. 처
나기런 전날에 천이완이 포병사령부 후방부에 화물차 한대
만 허락하여 집이나 역전까지 싣고 가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으
록방부는 대답하기를 빈차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천이완은
응급월간 사상금을 회의에서 매를 해주고, 또 떠날 때에도
이런저런 애로들을 겪으며 밤새를 밝고 한평생 잊을수없는
평양을 달리는 할수없이 등지고 소련으로 가는 기와머뭇을

실게 되었다. 두 장령은 하연없이 차칸에 들어앉아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조경양역을 떠나 처음보이는 곳이 간리병기창, 창이
 는 여기에 8년 동안 병기 관리국장으로 있어서 12월번어나 단어
 갔던지, 그 만에 어떤 병기들, 한약들이 어떻게 전멸되어
 았다는 것이 눈앞에 환하게 환상되었다. 다음으로 그 창터 옆에
 무성하게 들어서고 있는 우림들은 똑같이 천이완 소장이 자기들
 떨어두고 간다고 잘가시라고 머리를 숙여 민사를 불리려는
 물을 흘려놓듯 보였다. 아니다, 그것은 그 우림들이 머리를 숙이고 눈
 물을 흘린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천이완은
 차칸 내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자기 얼굴로 돌려 형님을
 쳐다보며, 그 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
 여 보기도 하니, 별말없이 선의주까지 도착하여 세관소
 에서 검열을 받은 다음 안동감 철교를 열든지 안동에
 도착하게 되었다. 안동에 도착한 두 형제는 함산, 삭선이나
 들리고 나온것처럼, 술도 자제롭게 쉬고 음식도 좀 놀여 말도 좀
 크게 하게 되었다. 천이완은 어디서인지 불한병을 들쳐가지고
 천을 선생을 부르며 우리가 자유로운 중국에 도착한 영예로 한잔
 씩 들자고 권고하였다. 사실 이 두분은 자기들이 안동땅에 도착
 한것을 의심스럽게 여기며,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실성
 있게 말할수 없는정도로 의문로 가져는 정로였다. 이것은 어나
 마음상, 정신상 한압을 계속 당하고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러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 말밖에 더하여 종전의 이 말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렇게 상상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두가쪽
 은 여기서 불어 자유세계의 자유를 맛보며, 경제제적으로 좀
 바쁘게 지내었지만 모스크바가 무척하게 도착하였다 모스크
 바에 도착한 두가쪽은 소련 국방성 간부국의 대표 소라의 접대
 를 받아 비버스로 소련 중앙영관 "로시타"에 들게 되었다

두 장령을 영접한 소리는 소련 물력성 간부들의 위압에 따라 말하기를, 급히 바쳐 12월 21일이자, 설전에는 무슨 문제들이 해결될수 없으니 짜옌 놓고 즉퇴하면서 설어나 잘되고 정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다. 두 장령들은 15년 동안이나 그리던 동지들을 모스크바에서 만나 보니까, 동부들과 같이 설로 첫었게, 자애롭게 되고 정월 3일 불어 오일 동안에 천이완은 모든 문제- 녀류 문제, 하유겐트 에 가서 사혁 문제, 북인 취직 문제 바어들이 함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받아 가지고 하유겐트를 출발하게 되었다. 하유겐트에 도착한 천이완은 자기형 천올라 특등같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받는다함 사혁은 바로 한집 에 해결받고 행복한 전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 문제의 조국을 떠난다함 천올노랑이 계속 활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이완 남이 남자로써 50세에 녀류 생활도 한 권리는 있다하여도, 본래 건강체 쇠욕가의 성질로, 직업 여이 집에 있어 있을수 없었다. 그와 더불어 우르베코 공화국 하유겐트는 북한에 가기전까지 살던 곳이고 하여 동생, 친구 들도 있고하여 그들의 권고에 따라 1961년 7월 불어 공화국 원유일가스 산업성 가스도관 배설 기계화 관리국장으로 일하시면서 위생적인 활동을 하시었다. 다음 1967년 7월 불어 공화국 건설성 신화 건설 도구 관리국장으로 1979년까지 일하시고, 60세에 환갑을 맞이한다음 은퇴하여 10년 동안 공휴적 휴식을 하였다. 선생은 24년 북인 감이나 양과 함께 소련 권역에 곳곳에 있는 휴양소, 경영소 들에 다 다니며 휴식하였다. 대로는 소련 관광단 성원 원으로 권 유럽 여러 나라들에 다 가서 구경하시었다. 선생은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꼭

17.

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것을 희망하였으므로 자식들은
그런 정신으로 교양하였다. 선생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기
인 1987년 봄에 그 혈압병으로 심부하시다가 1989년 10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최선생은 생전에 아들 4형제를
다 장가보내고 딸 형제도 다 시집보내며 손주들이 무럭무럭
위대복에서 아주 호화롭게 지내시었다. 최선생의 사생육
자들 4형제는 전부가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조국의 연월에 상당한 공헌들을 돌리고 있다. 최선생의
부인 장남나 할머니는 참 늙연배 될로 최선생과 행복과
고초를 같이하시어 그 선생의 생애의 막어날까지 열정을 따
라며 감사해주고 위로하여 주었다. 할머니는 오늘날에도 건강한
몸으로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유가족후원회 가장 열성
자로 활동하시어 손주들의 일들을 감사해주고 있다.

1995. 12. 5. 장남 천철라.